

## 제1절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식량을 차관으로 지원하였다.

### 1.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은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이며, 남북간 경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간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남북 정상간의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경제협력의 우선적 실천조치로써 경의선 철도연결을 제안하였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연결과 병행하여 신규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

김용순 특사 방문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을 빠른 시일 내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9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각계인사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세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도로노선 확정,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공동규칙 마련,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작업 남북한 동시착수 등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문산역에서 개성까지 24km의 철도구간(문산역-군사분계선 : 12km, 군사분계선-개성 : 12km)과 17km의 도로구간(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 : 5km, 군사분계선-개성 : 12km)을 연결하는 것으로 남측구간은 우리가, 북측구간은 북한이 각각 담당하며 200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측 구간의 총사업비는 철도사업비 639억원과 도로사업비 873억원으로 총 1,5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이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2000.9.9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단'을 구성(2000.8.8)하여 이 기구의 총괄·조정하에 관련부서간 역할을 분담하게 하였다. 철도청은 문산역에서 임진강교 구간(7.9km)의 노반공사와 철도 전구간의 궤도, 전기, 신호공사를 담당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구간(5km)의 설계, 용지보상, 구조물·포장공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임진강교에서 군사분계선 철도구간(4.1km)의 노반공사와 지뢰제거,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도로구간(5km)의 노반공사 및 지뢰제거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의선 철도연결 관련 지뢰제거 작업은 우리 군이 9월 18일 기공식 이후 공사지역에 지뢰제거부대와 최신형 지뢰제거장비 및 안전을 위해 보강된 굴삭기·불도저 등 12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민통선내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지역의 지뢰제거를 완료하는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환경훼손 최소화 및 생태계 보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환경 및 생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환경생태계공동조사단이 발족되어 지형·지질, 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7차례(2000.9.25-12.1)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물이동을 위한 통로,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분단을 정신적·물리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남북간의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에서의 임가공교역 활성화, 남북한 경제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직접투자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특히,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2.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남북관계의 정치적·이념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남북은 두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각 합의서와 관련하여 남북간 용어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같은 의미를 확인하고 각기 자기측 표현으로 기술한 뒤 각 합의서마다 용어 대비표를 첨부하였다. 또한 가서명된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으며 앞으로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상호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송금·출입·채류 등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용시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

다.

투자보장 합의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북한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보장받으며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는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남북의 상이한 조세체계를 고려하여 사업소득, 이자·배당·로열티 등의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고 이중과세 방지방법,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남쪽과 북쪽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북 사업의 투자수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분쟁해결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양측이 중재판정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거래관습이 달라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하여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청산결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간 직접 결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었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제3국 은행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남북간에 직접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청산결제제도 도입으로 상호보완적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분야 4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합의하여 만들고 운용하는 공통의 규범과 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4개 합의서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행·통신,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북측이 호응해 오는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3.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임진강유역은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 3년간 하류지역인 우리측에서만 232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으며, 1조 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임진강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상

호협력하에 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도 예상됨으로써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순 특사 방문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북측도 기본적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대북식량차관 제공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심한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2000년도 곡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내부사정을 솔직히 알리면서 약 100만 톤의 식량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식량지원문제를 공식적으로 우리측에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제공요청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의거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2000년 9월 23일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차관제공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를 파악하였다.(응답자의 55.3%가 대북식량차관에 대해 찬성) 또한 식량차관에 대한 3당 설명회를 통한 국회와의 협의,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 재원조달 방법 검토, 북한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 이러한 내·외부적 종합검토를 토대로 북한에 식량차관을 제공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식량차관제공의 규모와 식량 인도·인수 절차문제에 대해 합의(9.26)하였다.



— <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톤 및 옥수수 2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른다.
2.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
3. 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4. 차관의 상환기간은 식량차관 제공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1.0%로 한다.
5.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 정운업 무역성 지도국장이 서명한 합의서는 ①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②식량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상환으로 이자율 연 1.0%를 조건으로 하는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공하는 식량을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한 것은 국내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양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식량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제공하는 식량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분배투명성 보장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다.

식량차관의 재원과 관련,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족공동체회복지원(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1억달러 범위 내에서 협력기금을 대출한다고 의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북한에 조속히 식량을 인도한다는 합의에 따라 조달청에 식량구매를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은 식량공급 대행사와 2000년 9월 29일 식량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북측에 식량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당국의 위임을 받은 조선무역은행이 2000년 10월 4일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12월말 현재 쌀은 30만톤 전량이, 옥수수는 약 15만톤(20만톤 중 75%)이 수송 완료되었다. 옥수수의 잔여량 5만톤 중 약 2만 6천톤은 2001년 3월까지 북한의 남양으로 철도수송할 계획이며 나머지 약 2만 4천톤은 남포항으로 해상수송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분배투명성 보장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 중인 11월 10일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제공식량의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우리측 대표가 분배현장을 확인하였다.

분배현장 확인은 평양 인근지역(모란봉구역 개선동 식량배급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제공한 옥수수를 배급받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옥수수가 남쪽에서 지원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측 대표단이 최초로 분배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써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무상지원의 경우에 우리측 대표의 현장확인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절 남북한 인적교류 증가

### 1. 남북한 왕래

#### 가. 개 황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478건(21,101명), 승인 2,374건(20,094명), 성사 2,209건(18,601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865건(8,070명), 승인 845건(7,737명), 성사 804건(7,280명)이 이루어졌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371,637명(외국인 828명, 영주권자 184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2000년도 한해에는 213,009명이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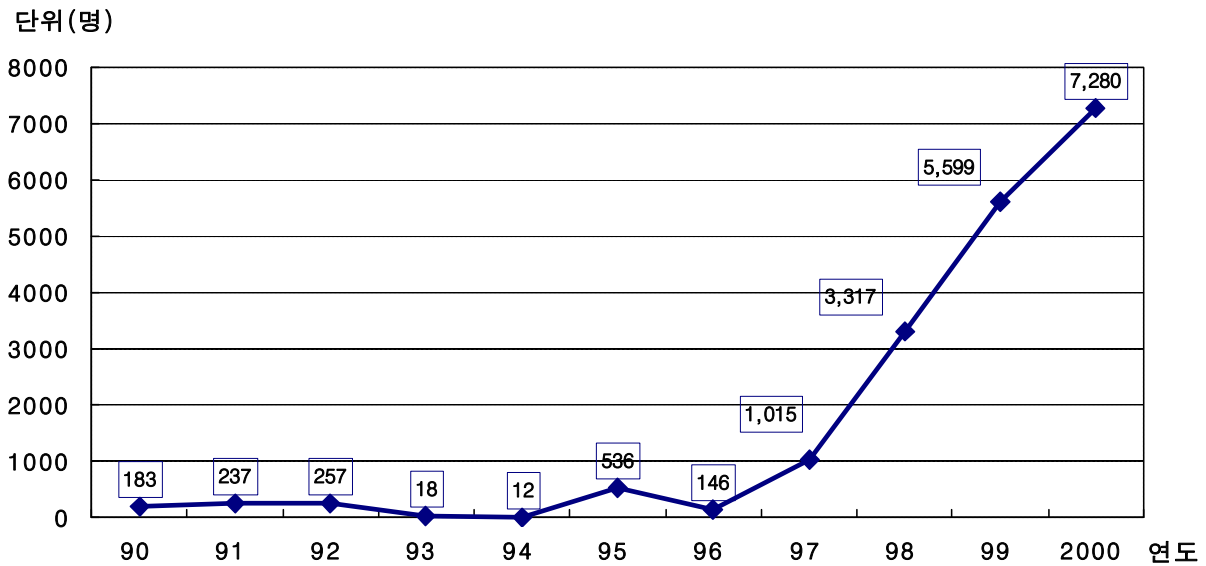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8명, 1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0.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4(18)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4(563) 1(7)	58(543) 1(7)	52(536)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0(3,317) -
1999	북한방문 남한방문	886(6,199) 1(62)	862(5,997) 1(62)	822(5,599) 1(62)
2000	북한방문 남한방문	865(8,070) 10(706)	845(7,737) 10(706)	804(7,280) 10(706)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2,478(21,101) 26(1,373)	2,374(20,096) 25(1,365)	2,209(18,601) 23(1,343)

###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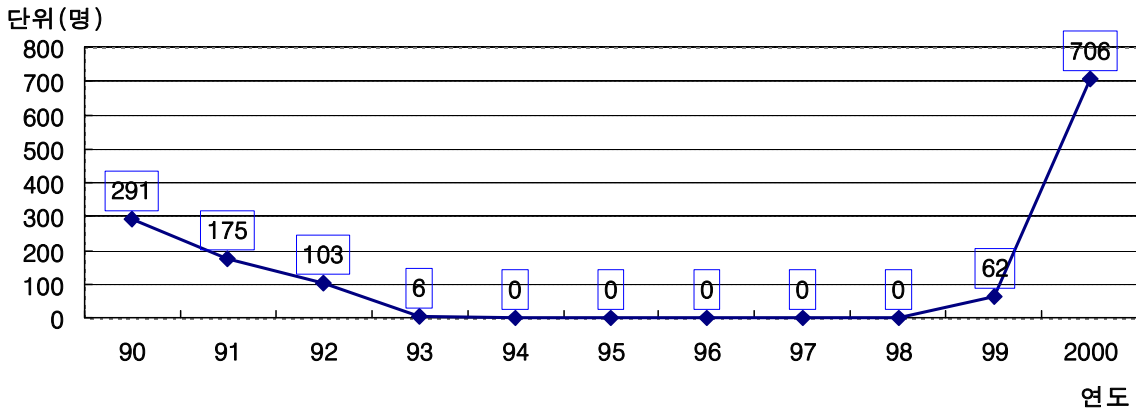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경분리원칙’ 등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16,019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의 방북인원 2,405명의 6배를 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0년 한해동안 706명이 남한을 방문하여 지난해 62명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났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남측을 방문한 인원은 총 1,343명으로, 방문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9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남한방문이 없다가 1999년 62명, 2000년에는 7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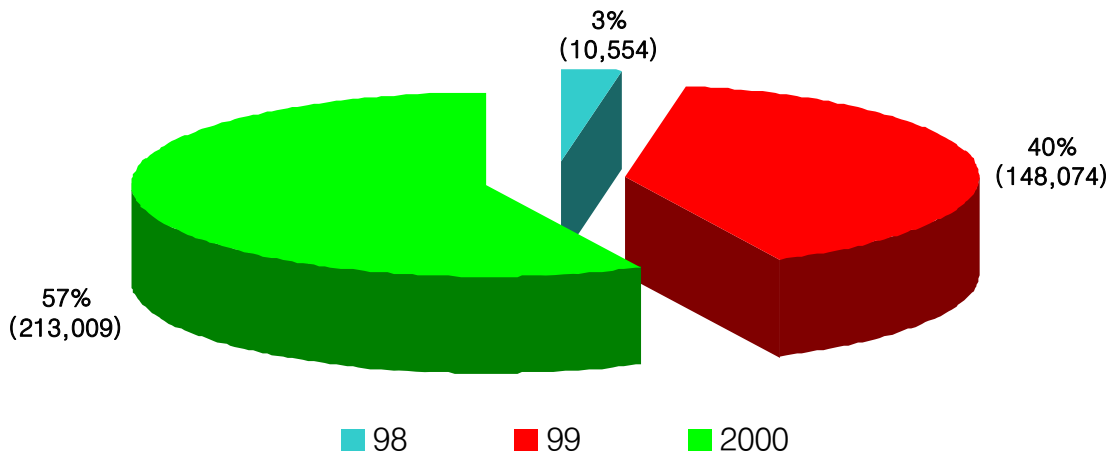
<연도별 남한방문인원 변화추이>



#### 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방북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관광선이 총 670회 운항되어 371,637명(외국인 828명, 영주권자 184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연도별 관광객 비율



2000년에는 「금강」·「봉래」·「풍악」호가 차례로 매일 운항되고 「설봉」호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월 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관계자 등 실무인력의 방북이 계속되어, 2000년에는 2,148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 다.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477건(1,904명), 승인 426건(1,702명), 성사 370건(1,37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39건(688명), 승인 130건(633명), 성사 125건(543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방북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92년 10월 남포 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추진과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남북경제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당국간 협의를 위하여 11월에 22명, 12월에 35명의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당국간 경제협력 협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공단 조성사업 협의를 위해 세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공단조성 후보지인 개성에 조사단을 파견(2000.11.11-12. 5),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전자복합단지 조성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개조 사업 추진, 녹십자의 의약품 개발 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 라.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257건(2,047명), 승인 231건(1,918명), 성사 180건(1,49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02건(949명), 승인 98건(934명), 성사 79건(674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언론·출판과 체육분야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 공연, 남북통일축구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 등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까지는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이를 위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7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를 위해 방북이 재개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105건(1,114명), 승인 100건(1,091명), 성사 81건(840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67건(628명), 승인 65건(624명), 성사 53건(451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 선문대 이형구 교수, 동국대 김동현 교수가 개성 영통사지 조사 및 복원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였고,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일제 강제병합자료 전시회 개최와 학술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초청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우인방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가 통일염원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를, 삼성이 아태와 통일탁구경기대회



평양경기를, 부산광역시 아태와 금강산 성화 채화를, 현대와 아태가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하여 우리측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8건(253명), 승인 32건(228명), 성사 27건(20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6건(167명), 승인 15건(160명), 성사 12건(146명)이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에 있어서 방북은 취재·보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정보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되면서 향후 남북언론교류 전망을 밝게 했다. 언론사 사장단은 방북시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가 9월 추석날 백두산에서 북한측 방송인들과 생방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SBS가 방북하여 취재내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겨레신문도 10월 방북하여 취재보도하였으며 그 외 MBC, 주간동아, 월간 말 등이 방북취재하였다.

종교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57건(231명), 승인 49건(194명), 성사 36건(14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0건(49명), 승인 10건(49명), 성사 9건(47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방북인원이 20%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각 교단에서 활발히 종교교류를 추진한 결과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1건(346명), 승인 26건(314명), 성사 17건(235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6건(91명), 승인 5건(87명), 성사 3건(25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 임권택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의 방북(11.11-18) 등을 들 수 있다.

#### 마. 대북경수로 건설사업관련 방북

1995년에 부지조사단 및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 한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0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관련 방북은 신청 194건(2401명), 승인 191건(2,280명), 성사 187건(2,231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4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 2000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명)

구 분	관 광 (실 무)	경 제	사 회 문 화	경수로 사 업	대 북 지 원	이산가족 (교류주선)	기 타	계
방북인원	2,257	543	674	2,231	751	348	476	7,280

#### 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26건(1,375명), 승인 25건(1,365명), 성사 23건(1,343명)이며 2000년에는 10건(706명)이 신청되어 모두 승인·성사되었다.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에서 개최한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 분야 전문가회의(11.8-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 199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 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측 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재개되었다.

2000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현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문화교류의 증가와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간 협의를 위한 회담의 회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1989.6.12-2000.12.31,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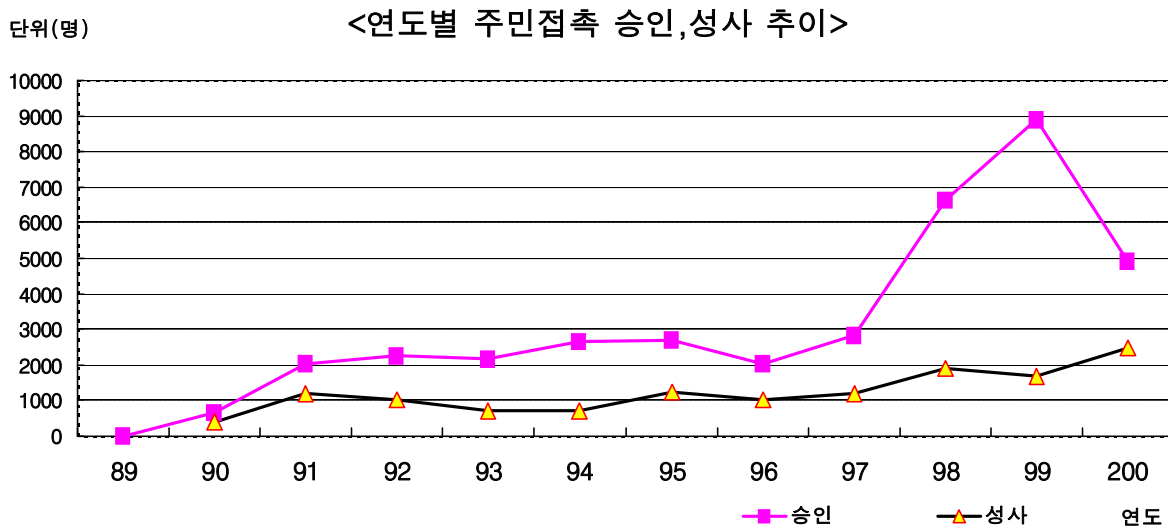
구 분	남북회담	체 육	문화예술	경 제	학 술	이산가족	기 타	계
인원(명)	420	210	369	34	15	287	8	1,343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2000. 5.24-27)에 102명, 평양교예단 공연 (2000. 5.27-6.11)에 102명,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29-31)에 25명,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 8.15-8.18)에 151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 8.18-24)에 132명, 김용순 특사 방문(2000. 9.11-14)에 8명,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2000. 9.24-26)에 15명,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0. 9.24-26)에 13명,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9.27-30)에 22명,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11.30-12. 2)에 136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 2. 북한주민접촉

### 가. 개 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2,511건(39,394명), 승인 22,099건(37,820명), 성사 6,041건(13,4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신청 2,831건(4,950명), 승인 2,812건(4,899명), 성사 1,710건(2,468명)이 이루어졌다.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을 겪으면서 1999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문화 및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꾸준히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접촉은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 북한주민접촉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72건(400명), 관광분야 2건(7명), 사회문화분야 165건(668명), 대북지원 21건(115명), 이산가족 1,239건(1,239명), 기타 11건(39명) 등이다.

###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연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2000	2,831(4,950)	2,812(4,899)	1710(2,468)
계	22,511(39,394)	22,099(37,820)	6,041(13,435)

(단위:건(명))

### 나. 관광사업 관련 접촉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173건(552명), 승인 165건(524명), 성사 49건(15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에는 신청 7건(28명), 승인 7건(28명), 성사 2건(7명)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현대와 아태 관계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관광분야의 교류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내여행사 등이 접촉 승인을 받고 접촉을 시도하였다. 우리측은 주로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과 남북관광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다.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960건(9,586명), 승인 3,869건(9,342명), 성사 2,045건(3,441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에는 신청 504건(943명), 승인 515건(951명), 성사 272건(40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을 시작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 등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북투자 협의(4.29, 베이징), 중견기업연합회의 대북투자협의(6.13, 베이징), 중소기업인 정선개발(주)의 대북사업 협의(12.17, 베이징) 등 대북투자 상담과 교역관련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이 성사되었다.

#### 라.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556건(3,923명), 승인 508건(3,273명), 성사 180건(2,036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신청 77건(300명), 승인 67건(267명), 성사 26건(60명)으로 전년도보다 접촉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성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접촉은 중국지역의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

의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지역에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었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세계 속의 한국어 대비연구 국제학술토론회(8.11~13, 베이징), 조선장학회창립 100주년기념 고대사 심포지움(11.24, 도쿄),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토론회(12.19~20, 연길) 등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의 신청 400건(1,694명), 승인 350건(1,597명), 성사 134건(90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에는 신청 62건(213명), 승인 62건(217명), 성사 36건(155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2000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배달문화교류회의 하바로브스크 아리랑 콘서트 참가(8.14-16, 하바로브스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코리아통일예술축전 개최 협의(11.28-12.1, 베이징) 등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이 함께 주최하는 공연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례도 늘어났으며(원코리아페스티벌), 조총련계 예술인(김홍재, 이철우 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잦았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24건(1,071명), 승인 214건(1,031명), 성사 73건(585명)이다. 2000년에는 신청 32건(144명), 승인 33건(149명), 성사 15건(6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서서울청년회의소의 한·일 친선축구대회 참가(7.28-8.1, 교토), 충청대학의 국제태권도대회 참가(8.24-29, 연길), 현대노장축구회의 노장축구친선경기 및 회의 참가(9.3-6, 연길), 체육과학연구원의 아시아스포츠 과학학술세미나 참가(11.20-24, 베이징)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74건(1,788명), 승인 318건(1,638명), 성사 135건(993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신청 43건(185명), 승인 41건(187명), 성사 21건(118명)이 이루어져 1999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접촉인원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하얼빈세미나(10.24-26), 기독교 후꾸오까회의(12.12-15)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 말까지 신청 338건(973명), 승인 296건(871명), 성사 109건(393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신청 70건(273명), 승인 67건(268명), 성사 55건(246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여 언론의 대북접촉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언론사들의 취재협의 및 프로그램 제작협의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언론 교류차원에서 남북신문교환이 합의되고 일시적이거나 진행되는 것은 언론교류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출판분야에서는 삼성당과 현암사, 규장각, 고려사, 동방미디어 등의 북한출판물 국내 출간 협의를 위한 접촉이 진행되었고, 국내 출간도 일부 이루어졌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31건(875명), 승인 220건(857명), 성사 57건(311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신청 32건(80명), 승인 31건(79명), 성사 12건(22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 1. 남북간 물자교역

#####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그 결과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 < 남북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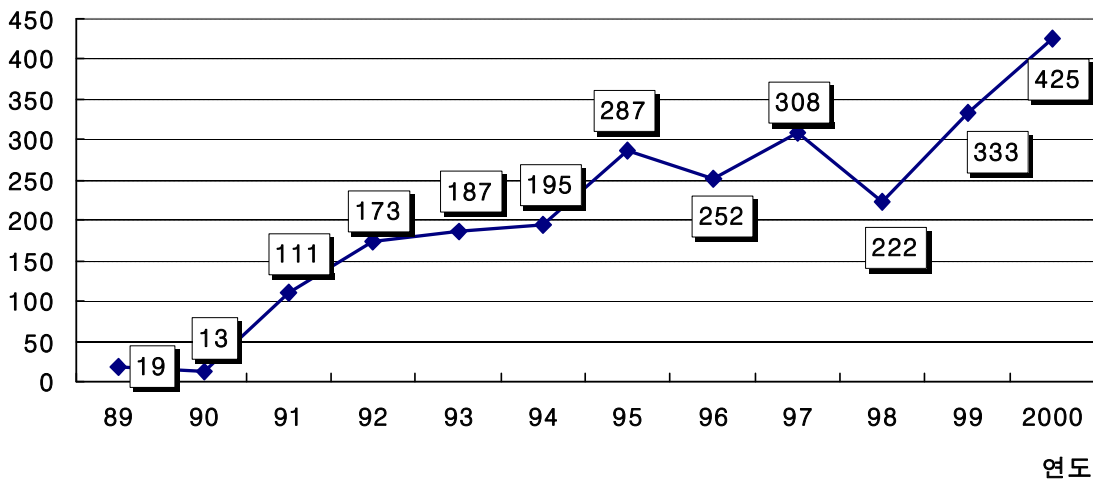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5	186,592
1994	708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19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19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9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계	15,965		1,618,546	18,277		907,671	34,242		2,526,217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단위(백만불)



###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

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이른 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은 대금결제에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1,611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흑자폭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북한의 흑자 기조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연도별 남북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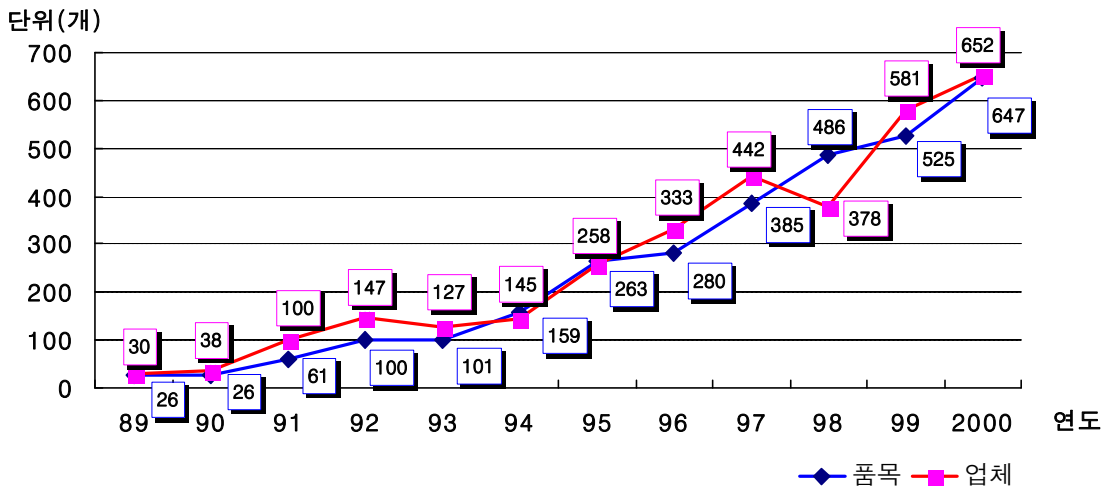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991~2000연평균 △ 68,120 (△ 116,109)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56,794)	
합계	1,618,545	907,672	2,526,218	△ 710,873 (△1,190,770)	

\*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 다. 교역형태 · 품목

남북교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변화추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교역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교역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품은 교역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에도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물과 섬유류

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로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47.2%, 석유류 35.2%, 철강금속제품 7.7%, 전기·전자 5.4% 등이다.

### <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생산물	석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 및 전기	기타제품	합계
1989	2,352 (12.6)	1,094 (5.9)	104 (0.6)	5 (0.0)	15,072 (80.0)	24 (0.1)	0 (0.0)	4 (0.0)	18,656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4,529 (36.9)	14 (0.1)	0 (0.0)	376 (3.1)	12,278 (100.0)
1991	10,818 (10.2)	21,520 (20.4)	5,732 (5.4)	0 (0.0)	67,303 (63.7)	17 (0.0)	0 (0.0)	329 (0.3)	105,719 (100.0)
1992	16,906 (10.4)	43,866 (26.9)	13,064 (8.0)	3,385 (2.1)	83,514 (51.3)	797 (0.5)	4 (0.0)	1,329 (0.8)	162,864 (100.0)
1993	12,015 (6.7)	87,277 (49.0)	1,528 (0.9)	8,477 (4.8)	64,647 (36.3)	0 (0.0)	80 (0.0)	4,144 (2.3)	178,167 (100.0)
1994	15,250 (8.7)	75,468 (42.8)	1,246 (0.7)	18,515 (10.5)	63,069 (35.8)	0 (0.0)	0 (0.0)	2,750 (1.6)	176,298 (100.0)
1995	22,319 (10.0)	86,562 (38.8)	347 (0.2)	28,833 (12.9)	81,629 (36.6)	9 (0.0)	6 (0.0)	3,150 (1.4)	222,855 (100.0)
1996	23,455 (12.9)	64,807 (35.5)	555 (0.3)	44,460 (24.4)	44,260 (24.3)	91 (0.0)	1,697 (0.9)	3,076 (1.7)	182,400 (100.0)
1997	27,326 (14.2)	48,313 (25.0)	15,677 (8.1)	47,091 (24.4)	47,946 (24.8)	999 (0.5)	3,140 (1.6)	2,578 (1.3)	193,069 (100.0)
1998	21,798 (23.6)	765 (0.8)	2,427 (2.6)	38,794 (42.0)	20,254 (22.0)	698 (0.8)	3,518 (3.8)	4,010 (4.3)	92,264 (100.0)
1999	47,886 (39.4)	2,462 (2.0)	2,494 (2.1)	45,513 (37.4)	16,120 (13.3)	1,557 (0.3)	2,838 (2.3)	2,707 (2.2)	121,604 (100.0)
2000	71,934 (47.2)	517 (0.3)	1,538 (1.0)	53,693 (35.2)	11,747 (7.7)	1,739 (1.1)	8,254 (5.4)	2,940 (1.9)	152,373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석유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석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에는 35.0%로 반출비중이 높아졌

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대북 비료지원에 기인된 것이다. 2000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35.0%, 섬유류 15.9%, 기계류·운반용 기계 11.8%, 전기·전자제품 10.3%, 1차산품 9.5%, 비금속광물 7.5% 등이다.

### < 반출품목 현황 >

(단위: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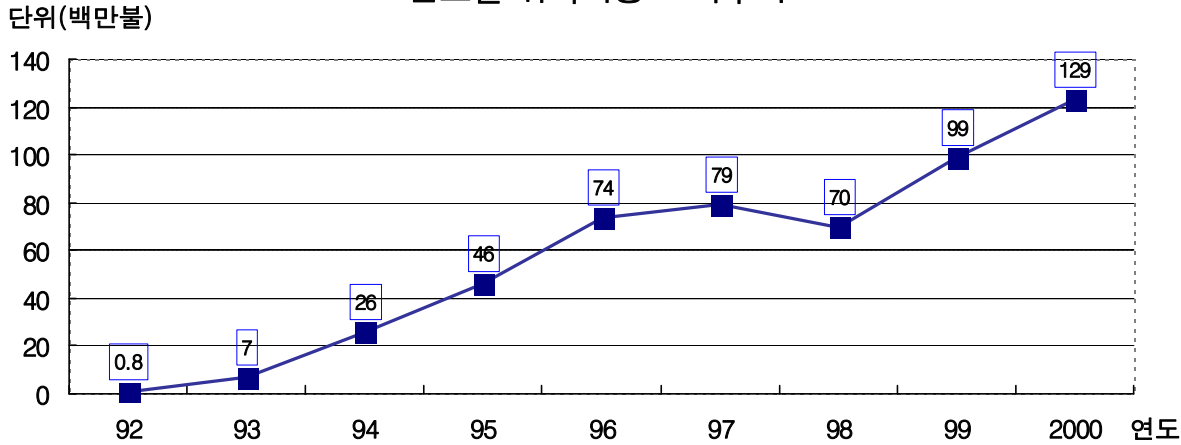
연도	일차산품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 무	비 금속 광물제품	섬 유 류	생활 용품	철강금속 제품	전자 및 전 기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잡제품	합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0 (0.0)	1,095 (92.2)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819 (32.8)	216 (3.9)	1,392 (25.1)	66 (1.2)	0 (0.0)	0 (0.0)	447 (8.1)	0 (0.0)	0 (0.0)	5,547 (100.0)
1992	64 (0.6)	5,214 (49.4)	2,369 (22.4)	135 (1.3)	717 (6.8)	85 (0.8)	1,957 (18.5)	0 (0.0)	22 (0.2)	0 (0.0)	10,563 (100.0)
1993	69 (0.8)	920 (10.9)	732 (8.7)	1 (0.0)	5,581 (66.2)	20 (0.2)	260 (3.1)	463 (5.5)	121 (1.4)	260 (3.1)	8,425 (100.0)
1994	3,317 (18.2)	1,499 (8.2)	152 (0.8)	79 (0.4)	12,077 (66.2)	255 (1.4)	274 (1.5)	160 (0.9)	56 (0.3)	379 (2.1)	18,249 (100.0)
1995	10,754 (16.7)	906 (1.4)	1,961 (3.0)	11,363 (17.6)	34,986 (54.3)	1,465 (2.3)	199 (0.3)	262 (0.4)	1,548 (2.4)	991 (1.5)	64,436 (100.0)
1996	6,715 (9.6)	2,506 (3.6)	3,069 (4.4)	13,666 (19.6)	36,340 (52.2)	1,907 (2.7)	290 (0.4)	2,172 (3.1)	960 (1.4)	2,013 (2.9)	69,639 (100.0)
1997	17,048 (14.8)	2,877 (2.5)	5,888 (5.1)	30,399 (26.4)	33,970 (29.5)	3,565 (3.1)	3,948 (3.4)	3,319 (2.9)	13,098 (11.4)	1,160 (1.0)	115,270 (100.0)
1998	19,944 (15.4)	5,054 (3.9)	4,717 (3.6)	21,467 (16.6)	28,543 (22.0)	3,707 (2.9)	9,475 (7.3)	5,495 (4.2)	28,923 (22.3)	2,355 (1.8)	129,679 (100.0)
1999	17,834 (8.4)	42,691 (20.2)	4,962 (2.3)	50,542 (23.9)	36,286 (17.1)	3,832 (1.8)	16,953 (8.0)	7,307 (3.4)	26,985 (12.7)	3,484 (1.6)	211,832 (100.0)
2000	25,896 (9.5)	95,528 (35.0)	4,752 (1.7)	20,497 (7.5)	43,433 (15.9)	5,414 (2.0)	13,995 (5.1)	28,075 (10.3)	32,122 (11.8)	3,042 (1.1)	272,775 (100.0)

### 라.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919만달러

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추이>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 신발, 완구 등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이래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이, 1999년에 (주)성남전자공업 등 6개 기업 57명이,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65건 1,387만 달러로 2000년도에만 31건 557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151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과 참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반출된 설비는 전자제품(컴퓨터모니터, TV,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등)과 전기제품(변압기철심, 디가우징코일, 콤팩트형 전구, 통신용신호분배기 등) 및 포장재용 발포수지 등 관련설비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위탁가공교역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합계	1,618,545	285,323	907,672	247,347	2,526,218	532,670

###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업체수(건수)	2(2)	3(6)	4(4)	6(6)	13(16)	17(31)	45(65)
금 액	532	670	490	1,380	5,234	5,565	13,871

###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151



## 2. 남북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 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는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의 공식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7월 남북간 수송장비운행승인제도가 시행된 이래, 승인초기에는 대부분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었으나, 점차 우리나라 국적선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는 공로 및 육로 수송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 1) 선 박

2000년도 남북간 선박운항 회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2,073회로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916회로 전년대비 25.3%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57회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다.

####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94. 7~12	'95	'96	'97	'98	'99	2000	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2,247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3,225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5,472

2000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703,145톤으로 전년대비 28.5%가 감소하

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547,262톤으로 전년대비 29.9% 감소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55,883톤으로 23.2%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중량 비중이 큰 KEDO반출과 광산물 등의 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94. 7~12	'95	'96	'97	'98	'99	2000.	합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547,262	2,521,114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155,883	1,435,405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03,145	3,956,519

## 2) 항공기

남북정상회담시(2000.6.13)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북간에 항공기가 최초로 운행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장관급 회담 일행, 백두산 관광단 수송 등 2000년 12월 말 현재 18회 운행하였다.

## 3) 차 량

2000년 8월 8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체육관 건설물자가 최초로 육로를 통해 운송되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육·해·공 수송체계의 다양화를 보여 주었다.

## 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운영

1997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가 항공로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 항공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9월 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

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3.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 가. 남북간 통신망 연결현황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서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인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 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2000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1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21
관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관문점경유)	2	'97. 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17
합	계	29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97. 8. 4
		2	2000.7.26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98. 11.17
		2	'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1	

### 나.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향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향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 **다.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고 1999년 5월 18일 추가로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8회선으로 늘어났다.

#### **라.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지원 통신**

북한은 2000년 7월말부터 금강산관광객의 통신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관계자들이 평양(건설현장사무실과 숙소)에서 서울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평양으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망을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은 공동명의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력사업 변경을 통일부에 신청하여 11월 20일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의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화 2회선 및 FAX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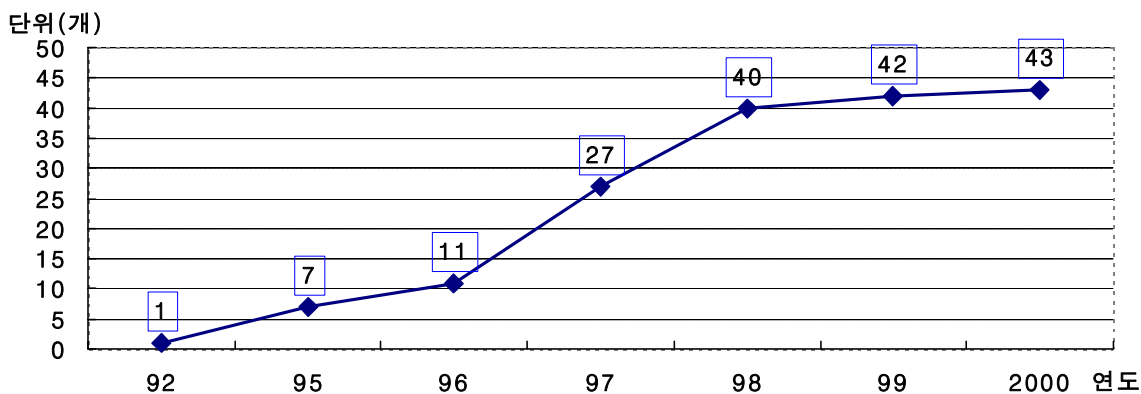
## 제4절 남북경제 · 사회문화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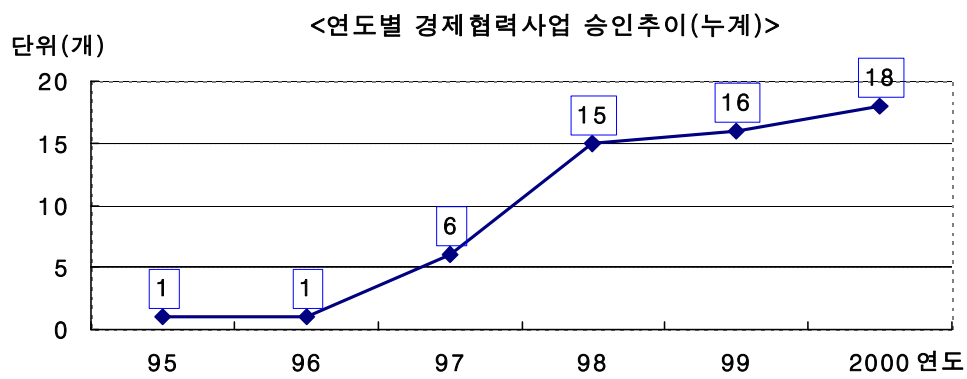
### 1. 남북경제교류협력

#### 가. 협력사업(자) 승인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총 43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나, 1999년 12월말에 협력사업자 승인기업 중 4개 기업이 최초승인기준 미달 및 남북경협질서저해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3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8개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0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11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

(2000.12.31 현재)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달러	'92.10.5 ( '95. 5.17)
고합물산 (합영,합작)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나진,선 봉,평양	686만달러	'95. 5.17
한일합섬 (합영,합작)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980만달러	'95. 6.26
국제상사 (합영,합작)	신발	”	350만달러	'95. 6.26
※ 녹십자 (합작)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달러	'95.9.15 (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달러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달러	'95. 9.15
삼성전자 (합작)	나진선봉 통신센터	”	700만달러	'96. 4.27
※ 태 창 (합영)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달러	'96.4.27 ( '97.5.22)
대우전자 (합영)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달러	'96. 4.27
※ 한국전력공사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달러 →11,430.8 만달러	'96. 7.15 ( '97.8.16→ '99.8.10변경)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TKC)	금호지구	40.8억달러 (PWC금액 포함)	( '99.12.15)
※ 미흥식품 (합영)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함흥,원 산,남포	47만달러	'97. 5.22 ( '98. 3.13)
▲신일피혁	피혁, 의류 봉제	나진·선봉	300만달러	'97. 5.22 ( '98. 3.13)
한 화 (합작)	PVC장판 제조	평양,남포	90만달러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달러	'97. 5.22 '97.10.14 (변경승인)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한 국 통 신	경수로건설통신지원사업	신포	.	'97.8.1 ( '97.8.1)
삼성전자 (합영)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달러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 생산	평양,남포	400만달러	'97. 8. 1
신 원 (합작)	의류 · 봉제사업	평양	100만달러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수산물 생산 · 가공	원산,해주	300만달러	'97. 8. 1
금오식품 (합작)	냉면 · 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달러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나진 · 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나진,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나진 · 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 · 운영	나진,선봉 (동명지구)	420만달러	'97.10.14
삼천리자전거/L G상사 (합영)	자전거 조립 · 생산	나진, 선봉	800만달러	'97.10.14
※태영수산/LG 상사 (합영)	가리비 양식 · 생산	나진, 원산	65만달러	'97.10.14 ( '98. 8.28)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6 ( '97.11.6)
※(주)아자커뮤니 케이션(합영)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지 역	편당 25만달러	'97.11.14 ( '98. 2.18)
(주)에이스침대( 합작)	침대 및 가구 제조 · 판매	평양 락랑구 역	425만달러	'98. 1. 9
롯데제과 (합영)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달러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	평양, 나진,선 봉	250만달러	'98. 2. 18
안성개발 (합작)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달러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달러	'98. 4. 8 ( '98. 7.27)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연구)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 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기타	30.9억원 →110억원 (‘99.3.25)	’98. 6.18 (‘98.6.18→ ’99.3.25변경)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 위원회 스폰서쉽 대 행		미정	’98.8.6
※(주)현대상선, 현대건설,금강개 발산업 현대아산 (‘99.2.25) (단독및BOT)	금강산관광사업(‘98.9.7)→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99.1.15)	금강산	9,583만달러 →1억33만달 러(‘99.1.15) →1억4,867만 달러 (‘99. 4.16)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주)코리아랜드 (합영)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및 건설팅업	평양	60만달러	’98. 8.28 (‘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 운영	나진·선봉 평 양	190만달러	’98.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	미정	’98.10.17
※ 백산실업 (합영)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 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 류 생산·수출	나진,선봉 (선봉군읍)	20.8만달러 (남북한총투자액 81만달러)	’98.10.28 (‘98.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온세 통신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금강산 관광 지역내	13만달러 (1단계)	’98.11.11 (‘98.11.11)
(주)해주 (합작)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달러	’99. 1. 8
※(주)평화자동 차 (합영)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3억달러 (1단계: 666만달러)	’99. 8. 31 (’00. 1. 7)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	북경	72.7만달러	’00. 3.13 (’00. 3.13)

## 나. 공단조성사업

현대가 개성지역에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내 공업단지 조성  
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

의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와 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1단계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 사업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전력·용수·항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등 경험분야 4개 합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여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나가는 가운데, 현대로 하여금 고용·임금·세제혜택·송금 등 우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적합한 제도가 경제지구 지정시 반영되도록 북측과 사전 협의토록 유도하면서 사업추진체계와 자금조달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정성 있고 국제적으로 경제성 있는 공단으로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이 이미 개방한 나진·선봉지역의 경우는 지난 1998년 10월 이후 남한기업인의 방문과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다. 제조업분야 협력사업**

2000년에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의 모색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창의 금강산 샘물은 2000년 7월부터 국내판매가 개시되었고, 녹십자는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을 9월에 준공하여 시험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0년 1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수리·개조공장

을 완공하였으며, 2000년 10월 본공장 건설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까지는 연간 약 15,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라. 농·어업분야 협력사업

농·어업분야 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어업분야 구조개선을 도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2000년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은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2000년말까지 국제옥수수재단이 16차례 방북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6월로 완료예정이던 사업을 향후 7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1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은 2000년 4월부터 남북한 동시판매된 '한마음' 담배 생산을 종료하고, 새로운 담배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부터는 사업이 재개되었다.

한편, 어업분야에서는 미홍식품, 수협중앙회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000년 12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 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와 접경 3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

무작업반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제3단계 TRADP 사업이 추진되며 관광, 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등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며, 운영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 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의 외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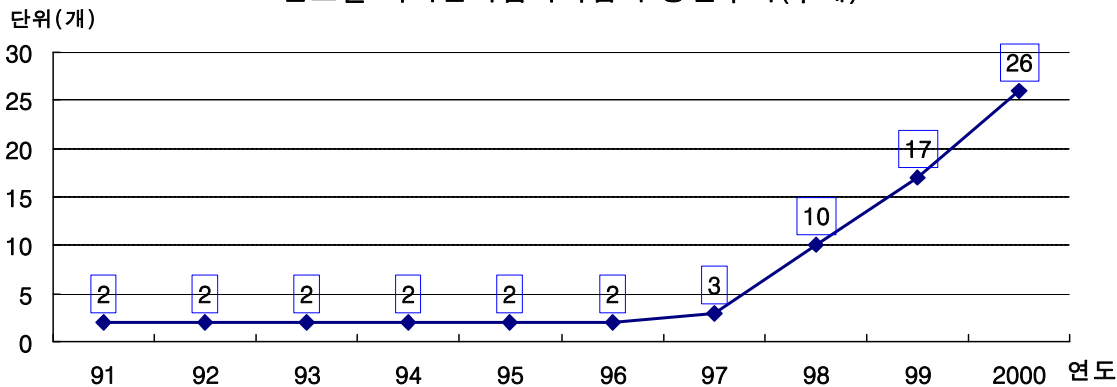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 가. 협력사업(자)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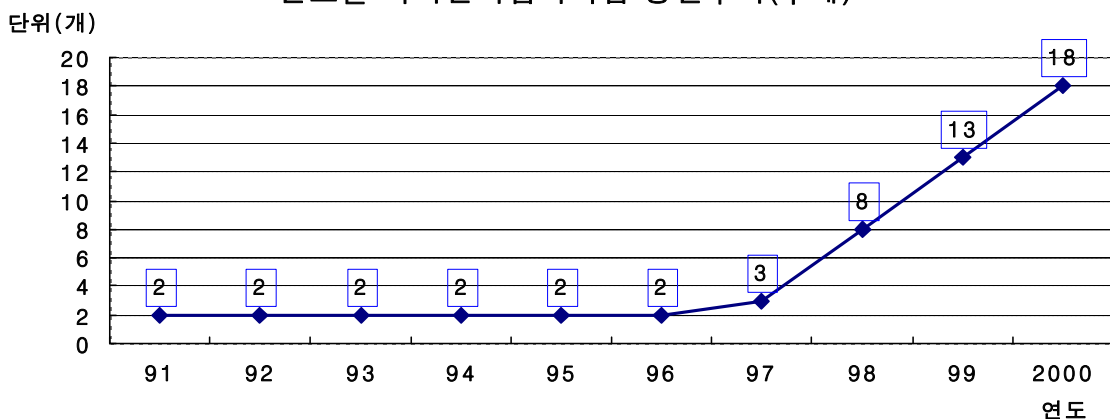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한 최초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이후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26개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스포츠아트, 한민족복지재단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8년에, 현대아산, SN21 엔터프라이즈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9년에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와 한국문화재단 등 9개 단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이 중 18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998년에는 문화예술, 방송·언론,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5개 사업이, 1999년에는 체육분야에서 2개(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교류사업, 1999년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자동차랠리) 사업이, 문화예술분야에서 3개(1999년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평양교예단 한국방문공연) 사업이, 2000년에는 문화, 예술분야에서 5개(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 사업,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금강산가극단 한국 방문공연)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추이(누계)



## 나. 관광·체육교류

남북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한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개성관광, 백

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등이 남북한간에 협의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초기에 관광객 억류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일상적인 관광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사업자인 현대측은 안정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 관광선 1척을 강원도 동해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지를 변경(2000.3.9)하였고, 추가로 쾌속선 1척을 도입하여 취항(2000.10.1)하였다. 이에 따라 총 4척의 관광선이 동해항, 속초항, 부산항에서 매일 다양한 일정을 가지고 운항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는 북한의 장전항 본선부두를 건설(2000.5)한 데 이어, 「해상호텔」을 장전항에 설치·운영(2000.10)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강산여관」을 임차했으며 보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대는 금강산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와 북측은 개성관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남북한간의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한 개성관광이 빠르면 2001년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더불어 백두산과 한라산의 시범적인 교차관광이 추진되고 있다.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었던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우리측 제의를 북측이 수용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써, 우리측 백두산관광단 109명이 먼저 백두산, 평양 등을 방문(2000.9.22-28, 6박7일)하였다. 북측의 한라산 관광단은 당초 10월초에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다소 연기되어 2001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두산-한라산의 시범교차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남북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에 와서야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29)하였다. 이어서 서울에서 통일농구경기대회



(1999.12.23-24)를 개최함으로써 1991년 북한축구선수단의 남한방문 이후 8년만에 북한남녀농구선수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00년도에는 우인방이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2000.7.3-4)를 개최하여 우리측 인원 228명과 차량 47대가 참가하였으며,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이 본격화되어 평양에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상주하는 한편, 건설물자, 장비 등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을(2000.9.15) 함으로써 남북화합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 다. 문화·예술 교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5월에는 한국문화재단 소속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하였고, 10월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국내 음악인들과 함께 평양 윤이상음악회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99년 초부터 이에 따른 후속공연과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상호교환공연이 추진되었다. 1999년 12월 5일에는 (주)코래콤과 SBS가 주관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2월 20일에는 SN21엔터프라이즈와 MBC 주관하에 남북한 대중가수 합동공연인 『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2000년에는 북측 예술단의 대규모 장기간 남한방문 공연이 특기할 만하다. (주)평화자동차의 초청으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02명이 5월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여 5회에 걸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남북정상회담 경축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NS21이 주관사업자로 평양교예단을 초청하였다. 이에 평양교예단 102명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1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13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 공연들은 19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이후 10년만의 남한방문공연이며, 최장기간 북한주민들이 남측 지역에 와서 머물렀던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8월에는 『광복 55돌 경축·공동선언 환영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위하여 조선국립교향악단 132명이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다. 방문단

은 KBS홀과 예술의 전당에서 KBS교향악단, 조수미, 장한나 등과 총 4회의 협연공연을 하였다. 이어 12월에는 한국문화재단의 초청으로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82명이 서울을 방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4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 라. 언론 · 출판교류

언론 · 출판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 조사」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통일문화연구소는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 문화유적 등을 취재하였다.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활용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고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다시 2000년 「북한 문화예술자료 정보화 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주)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0.12.31 현재)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3.21 (1991. 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5. 1 (1991. 5. 1)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달러	1997.12.10 (1997.12.10)
※연변과기대 후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19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500만달러	1998 .1. 9 (1998. 6. 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 두산, 금강산 등)	60만달러	1998. 3.13
※한민족복지 재단 (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달러	1998. 4. 8 (1998. 6. 5)
※스포츠 아트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 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달러	1998. 4. 29 (1998. 4.29)
※한국사진 학회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 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1998. 4.29 (1998. 4.29)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구 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운)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1998. 5. 11 (1998. 6.20)
우인방커뮤니 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 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 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1998. 8. 6
※우인방커뮤 니케이션/한 국자동차경주 협회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래리	100만달러	1999. 2. 9 (1999.11.11)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CNA 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 양·서울공연	100만달러	1999. 3.25 (1999. 4.16)
MBC 프로덕션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달러	19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 진사업	미 정	1999. 7. 21
※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60만달러	1999. 8. 5 (1999. 8. 5)
※(주)현대 아산·현대건설 (2000.3.8) 현대자동차등 13개사(추가) (2000.7.4)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5,750만달러)	1999. 9. 2 (1999.9.20→ 2000. 3. 8 변경승인, 2000. 7. 4 변경승인)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달러	1999. 9. 22 (1999. 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달러	2000. 2. 3 (2000. 2. 3)
평화의 숲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 묘목·장비 지원	4억원	2000.4.12
기 독 교 대 한 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 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달러	2000.5.20
※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불	2000. 5.23 (2000. 5.23)
※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불	(2000. 7.14)
※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 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싸이 트 개설 운영	60만불	2000. 9. 1 (2000. 9. 1)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달러	2000. 10.14
(주) 야미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남북 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2000. 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1천만엔	2000. 11.29

##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적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총 규제 40건 중 14건 폐지, 15건 개선)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승인대상품목을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왕래자의 휴대품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북한 방문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북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종료 후 반납하도록 하여 수시방북자가 귀환·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이나 위탁가공교역 추진과 관련한 물품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품목, 수량, 반출·반입시기 등을 기재한 반출·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출·반입시마다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명서 발급 제한기준, 북한방문안내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절차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남북경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도 증대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1월 21일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남북협력기금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일반기업과 차등화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가공교역 원부자재 반출자금에 대한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을 신설하고 대출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원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상징적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해소시키는 실질적 효과도 제공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사전분담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법제가 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지원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1. 대출비율 상향조정(소요자금의 50%→60~70%)
  - 일반지원대상자 : 60%, 중소기업자·유휴설비 반출자 : 70%
2. 대출기간의 확대
  -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간 : **8년 이내**(←현행 7년이내)
  - 물품 반출입자금 대출기간 : **2년 이내**(←현행 1년이내)
  -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자금 대출기간 : **5년 이내**(←현행 3년이내)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기간 : 개별대출 **취급일부터 1년 이내**(한도승인방식 대출의 경우)
3. 신용대출제도 도입
  - 대출시 담보 취득이 원칙이나, 차주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실시
  - 신용대출한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관련 여신규정을 준용하여 설정
  - 신용대출 대상기업의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신용대출한도 설정 및 일정요건 구비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신용등급 상향 조정
4.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방식 변경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해서는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으로 변경(←현행 「거래별 대출방식」)
    - 과거 위탁가공 반입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동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출금 집행
  - ※ 1년 미만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거래별 대출방식 유지
5. 대출대상자 확대
  - 현행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전년도 교역 실적이 없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성 및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경험 참여를 지원
6.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자금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징수방법 변경
  - 대출금 상환을 연 **2회 이상**(6개월 단위) **정기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변경(←현행 분할 또는 일시상환 방법)
  - 대출이자 징수방법을 6개월 단위로 조정(←현행 매월 단위)

## 2.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가.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에 따라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6,350억원, 민간출연금 10억 8,700만원, 운용수익금 1,738억 4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046억 8,300만원, 기타수입금 2억 7,500만원 등 총 1조 2,148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에는 정부예산에서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출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5,0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남북협력기금은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사업 지원이나 쌀 직교역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에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사전 용역비 600만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달러를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공자예수금	기타수입금	계
1991	25,000	-	237	-	-	25,237
1992	40,000	-	5,118	-	-	45,118
1993	40,000	3	4,778	-	-	44,781
1994	40,000	1	9,387	-	-	49,388
1995	240,000	119	14,589	-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	118,542
1997	50,000	288	27,874	-	-	78,162
1998	-	-	40,280	-	-	40,280
1999	-	3	23,013	149,831	-	172,847
2000	100,000	541	30,118	254,852	275	385,786
계	635,000	1,087	173,804	404,683	275	1,214,849

2000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대북비료 30만톤 지원사업에 943.6억원, 대북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대출사업에 867.4억원, 2001년 9월 완료예정인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145.8억원, 제 1·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23.3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2.3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과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에 대해서도 각각 3.2억원과 6.4억원을 지원하였고, 대북경협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교역자금 5억원을 대출하는 등 2000년 12월말 현재 총 5,665억 9,3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이 밖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3,777억 6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1,40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사업대출용자금 635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2,377억 6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 나. 분야별 기금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용도에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대북사업 및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제한하여 왔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인적왕래(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문화 협력사업(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에 대해서도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기금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대해서도 첫 기금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용도(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로는 제1·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대북 식량차관 제공, 대북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의선 및 국도 1호선 연결을 위해 경의선 철도와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건설에도 기금을 지원하였고 경수로 건설 본공사 추진을 위해 KEDO에 대해서도 기금을 대출해 주었다.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원 실적 >**

(단위:백만원)

내역		금액
교류협력	○ 평양소년학생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319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637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1,373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8,518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6,060
인도지원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28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3,378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지원	153
	○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63,572
	○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30,785
	○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1,871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455
	○ 조총련동포 고향방문단 지원	124
경수로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19,023
	○ 경수로사업대출금(1998)외화환산손	16,622
기타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99
계		153,417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대출액	비고
경수로 PWC공사비 대출(1998년, 2000년 회수)	67,523	○ 외화(US\$) 대출
경수로 TKC공사비 대출(2000년)	325,936	○ 발전소 완공후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비앤씨무역 아연괴 반입자금대출 (2000년)	500	○ 대출기간 : 3개월 ○ 이자율 : 6%
대북 식량차관 대출	86,740	○ 상환기간 : 차관총액 최종확정일로부터 30년 ○ 이자율 : 1.0%
계	480,699	

###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8조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제3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위원 현황은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이 상임위원으로서 안전에 따라 4명까지의 비상임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협의회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에는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28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는데, 총12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건의 안전을 처리한 1999년에 비해 협의회 개최 건수는 거의 비슷하나 처리안전의 수는 11건(1999년 대비 65% 증가)이나 증가되었다. 협의회에 부의되어야 할 안전이 증가된 것은 남북교류협력이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의결한 안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북협력기금법상 「민족공동체회복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대북 비료 지원, 대북 식량차관 제공,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 민간대북지원단체 지원사업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이외에도 대북경협기업에 대해 경협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의결하였으며,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같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주

기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집행과 기금 조성에 대해 체계적인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의결하기도 하였는 바, 남북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 남북한 교류협력을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각종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 < 2000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일 시	안 건	
	의안번호	의 안
2.28	101	「199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2.28	102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3.2	103	이산가족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04	북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05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12	106	한국 JTS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9	107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27	108	경수로건설 공사대금 금융비용(Financing Charge)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
7.28	109	200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110	대북비료 10만톤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3	111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12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13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14	200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2001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안)
8.9	115	남북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안)
	116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안)
8.17	117	광복55돌 경축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9.9	118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119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0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절차에관한고시중 개정(안)
9.28	122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 승인
	123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승인
11.21	124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25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
	126	민간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7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
	128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